

YI SENG MIN & PARTNERS

변호사.변리사.관제사 이승민

소송,투자,부동산,기업법무,지식재산권

yisngmin@centrin.net.id

yisngmin@gmail.com

(62-21)525-5959, 527-2422

(62)816-1911-245

우리컨설팅woori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한국-인도네시아 전략대화 개최...경제 및 방산 협력 논의

한국 외교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월 6일 자카르타에서 제1차 한-인도네시아 전략대화를 개최해 양국 간 경제 및 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압두라흐만 모하마드 파히르 인도네시아 외교 차관과 양국간 방산협력, 경제협력, 영사·노동협력, 사회·문화협력 증진 방안 및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 동남아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에 관해 심도 깊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전략대화는 지난해 5월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 시 양국 정상이 고위 실무급 외교 전략대화 신설에 합의해 개최된 것으로, 양 차관은 양국 간 고위급 협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장관급 공동위와 함께 양국 간 차관급 전략대화를 정례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임 차관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잠수함사업, 전투기공동개발사업(KFX/IFX)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의 순조로운 이행을 평가하고, 방산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인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양 차관은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양국 교역 확대를 위해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노력하고, 크라카타우-포스코 합작제철소, 자카르타 경전철(LRT) 사업 등 작년 5월 정상회담의 성과사업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임 차관은 양국 간 교역 및 우리 기업의 화인니 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현지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중간재는 반덤핑부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양 차관은 외교

관·관용 여권 사증 면제협정의 조속 체결 및 고용허가제 MOU 조속 갱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가기로 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임 차관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 노력에 인니 정부가 기여해 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급년 ASEAN 회의에서도 적극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고, 파히르 차관은 “북한의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 2321호를 철저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양 차관은 올해 ASEAN 창설 50주년 및 한-ASEAN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



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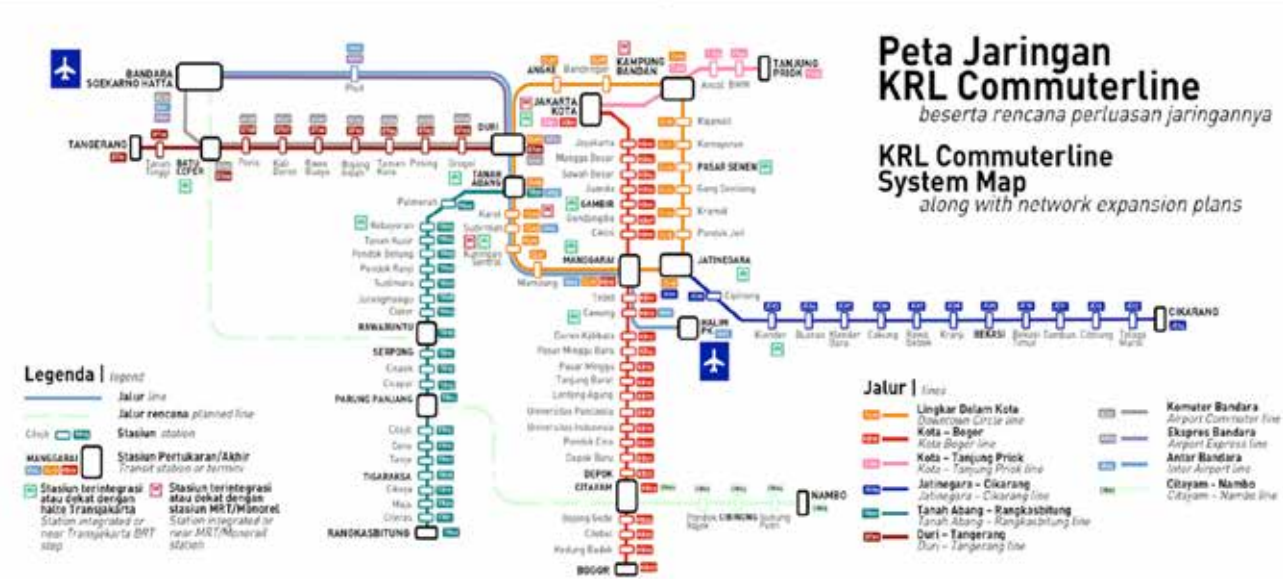
한편, 임 차관은 6일 ‘레 르 영 밍’ 아세안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올해 아세안 창설 50주년과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과 아세안 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특히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아세안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기사.haninpost@gmail.com>

수카르노하타 - 할림공항 고속열차 백지상태로 원위치 도시화와 교통량 증가 해결에 자본투자 차질 두 공항 34킬로 잇는 고속전철사업 민관투자 "글썄"



수카르노하타공항 입출국에 있어 극심한 도심정체로 향후 고속전철을 기대했으나 이마저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자카르타 근교에 있는 수카르노하타공항과 할림공항을 연결하는 고속열차가 민간투자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없다고 판단, 결국 이 계획을 백지상태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도시 공항 고속철도 백지화 방침에는 계속되는 도시화와 교통량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투자 때문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망그람에 위치한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과 동부 자카르타에 위치한 할림 페르다나쿠수마 공항을 잇는 34킬로미터에 달하는 도시 고속철도는 수도의 전략사업 중 하나로, 정부의 자금 조달에 우선순위를 두고 민관 파트너십 하에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행 가능성을 두고 정부의 인프라 자금 조달 부서 Sarana Multi Infrastruktur는 철도 건설에 필요한 자금 중 70%에 달하는 17.5조 루피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민간 부문 투자가 비용을 대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Jakartaglobe는 보도했다.

민관 파트너십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민관 파트너십 프로젝트 참여할 시 비용의 50%까지 부담하기로 정해져 있다.

교통부의 Prasetyo Boeditjahjono 철도 국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계획을 재고해 봐야 한다. 노선을 변경하거나, 우회 혹은 일부 지역을 생략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고속 열차는 할림 페르다나쿠수마 공항에서 시작하여 수카르노하타 공항에 이르기 전에 데벳, 망가라이, 타나 아방역을 연결할 예정이었다.

Prasetyo는 교통부가 프로젝트 속도를 올리기 위해 별도의 대통령령 또한 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철도는 공기업 Kreta Api가 확장한 기존 철도망과 통합하여 수카르노하타 공항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 한인포스트>

NEUVA ICE

POLYTRON
Memang Canggih

더 빨리 더 시원한 에어컨 절전형 에어컨

절전형 폴리트론 에어컨은 7분만에 실내온도 18도까지
1/2PK 에어컨도 ‘최고쿨링엔진’ 장착으로 40% 더 빨리 시원하게
무더운 날씨를 더 빨리 더 시원하게 해 드립니다.

4차원
스윙

공기정화

75%
에너지절약

*POLYTRON 실험결과 450VA 전기에도 작동됩니다.
한국인 데스크 ●(개인고객)–021–45869199 ●(법인고객)–Mr. Alex Moon 0812–1086–8615

Customer care: 0-800-1-100999 | www.polytron.co.id

Polytron

@PolytronIndo

=정가 핫이슈= 반역 루머와 도청 루머는 왜?

유도요노 “조코위 대통령과 반역 루머에 대해 공개 대화하고 싶어”
반역 루머는 "시위 자금조달, 대통령 궁 폭탄계획, 국가 전복" 누가?
유도요노 대통령, MUI(이슬람지도자회의) 의장과 전화 도청의혹 제기



수실로 발방 유도요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최근 그와 연관된 이슬람 시위와 반역과 관련한 루머에 대해 조코 위도노 대통령을 만나 공개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republika.com이 보도했다. 그는 “아쉽게도 아직 조코위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없다. 생 각건대 조코위 대통령은 내가 지난 11월 4일 시위에 자금을 대고, 대통령 궁에 폭탄 설치를 계획했으며, 국가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보고를 누가 했는지 공개적으로 말하고, 알고 싶어 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아후크 주지사의 이슬람 모독 사건과 관련하여 MUI(이슬람지도자회의)의 Maruf Amin 의장

과 유도요노 간 전화 통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아후크의 변호인단의 성명에 대응하여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후크는 지난 9월 Pramuka 섬에서 주민들 앞에서 코란 경전을 모독한 혐의로 8번째 재판을 받고 있다.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아후크의 변호인단의 성명과 관련하여 화내지는 않았으나 불법 도청이 있었는지 수사를 요청했다. 그는 11월 4일 시위 지원, 대통령 궁 폭탄, 반역 등의 사건과 관련한 혐의와 무관하다는 것을 조코위 대통령에게 해명할 필요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오해와 의혹, 편

견, 악감정 등을 방지하고자 각종 루머들에 대해 해명하고 싶다”며 이어 “조코위 대통령을 만나 해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이면서, “조코위 대통령 역시 나를 만나보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대통령 주위 몇몇 사람이 막고 있다. 전 대통령이자 그의 친구로서 만나 보고 싶다는 것을 막는 그들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Agus Harimurti 후보(기호 1번)는 유도요노 대통령의 장남이며, 여당이 지원하는 아후크 주지사의 경쟁자이기도 하다.

함다니 국회의원 “OIC 위원국, 이슬람 국가들이 전쟁을 멈추도록 힘써라”

지난 1월 28일 아프리카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서 열린 이슬람협력기구(이하 OIC) 의회 포럼에 참석한 나스데름(Nasdem) 출신 함다니 인도네시아 국회의원은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은 즉시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Kompas 1월28일자에 따르면 함다니 국회의원은 OIC위원국 대표들에게 “전쟁은 국민들에게



강조했다. 이어 OIC 의회 포럼 참석을 계기로 함다니와 파흐리 함자(Fahri Hamzah) 국회의 부의장은 사우디 아라비아 성지순례 담당인 이슬람교의 협의회(Malelis Shura Arab Saudi)의 Muhammad Amin Ahmad Jefri의장을 만나 2017년 인도네시아 이슬람 교도들을 성지순례할당 인원을 52,000명으로 증가시킨 점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인도네시아 "美 승인 못 받아 KF-X 사업 공동추진 지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X/IF-X)이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 허가를 받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전 허가 대상이 핵심 기술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일 안타라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압두라흐만 모하마드 파히르 인도네시아 외교부 차관은 전날 자카르타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차관급 전략대화를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사업이 여러 부문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와 관련해 작년부터 국방부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해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히르 차관은 "인도네시아가 미국 측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는데 한국도 협력할 것"이라면서 "양국 공조가 사업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득될 것이 없다. 붕괴와 몰락만 일으킬뿐"이라며 “현재 전쟁터가 된 이슬람국가(IS)가 점령한 아라크와 시리아 지역에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득될 것이 없다. 붕괴와 몰락만 일으킬뿐”이라며 “현재 전쟁터가 된 이슬람국가(IS)가 점령한 아라크와 시리아 지역에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시아는 해당 기술을 이전 받기 위해 미국 측으로부터 별도의 기술이전 심사를 받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0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작년초 인도네시아 국방부, 인니 국영항공업체 PTDI와 KF-X/IF-X 공동개발사업 본계약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6천억 원을 투자하고 KF-X 개발에 참여해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이후 차세대 전투기 50기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카르타=연합뉴스)

‘재외국민투표권 지키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글.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원회가 1월9일 조기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투표참여를 한 시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네 번째 관문 중 첫 문을 통과한 셈이다.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르면 재외국민유권자는 2017년에 실시되는 대통령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지난해 11월 뒤늦게 발견(?)되어 심재권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급하게 문제의 부칙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제의 공직선거법 부칙조항 골자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하여 제 14장의 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2018년 이전에 실시되는 대통령 보궐선거에는 재외국민은 투표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문제의 부칙조항이 마련된 이후인 2011년 7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18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1항’에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 218조에는 재외국민대선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두 조항이 사실상 충돌하고 있다고 있는 셈이다.

2009년 2월12일 개정된 부칙에는 재외국민들은 2018년 이전에 실시되는 대통령보궐선거에 투표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2011년 7월 28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해 재선거 사유가 발행

할 경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외국민유권자들의 대통령 보궐선거 참여를 2018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 2009년 2월 부칙조항이 대통령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2011년 7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본문을 강제한 셈이 된다. 법 개정 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모순점이 발견된다. 재외국민투표가 첫 실시된 시기는 2012년 4월11일 19대 총선이고, 두 번째 재외국민투표는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선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재외국민투표는 2016년 4월16일 실시된 20대 총선이다.

재외국민투표 진행과정을 볼 때 총선보다 대선이 훨씬 쉽고 재외국민유권자들의 참여열기도 높다. 재외국민투표 관련법을 마련할 당시 대통령 탄핵과 보궐선거를 예측하고 범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사는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한 중앙선거위의 실무 준비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재외국민투표 관련 법안을 만들면서 혹시나 생길 줄 모르는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참여를 7년 정도 한 시적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부칙조항을 마련한 취지도 재외선거 경험을 아주 없었던 2009년 당시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칙조항 마련 2년 후인 2011년 7월에 마련된 재외선거관위 설치 운영 조항을 개정하면서 “대통령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위를 설치한다”는 규정을 마련할 때 문제의 부칙조항에 명시된 “2018년 1월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일이다.

중앙선거위는 두 번의 재외국민 총선투표와 한 번의 재외국민 대선을 완벽하게 치른 경험을 비축하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국회에서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기에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된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중앙선거위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2017년에 조기대선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비한 준비를 별도로 완벽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재외국민투표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

재외국민투표는 국내의 사전투표와 같은 통합전산명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특별히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다. 총선보다 대선이 쉽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에서의 관련 부칙조항 개정이다. 악법이라도 개정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해외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이미 ‘재외국민투표권 지키기 온라인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재외동포언론인 단체와 민주한인총연 등 한인단체가 재외국민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야야 정치권에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정치권은 재외국민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정당별로 유·불리를 계산하지 말고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재외국민들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재외국민 유권자 역시 대한민국 정치권이 조기대선 시 재외국민 투표참여를 한시적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제2회 재인니 대한테니스협회장배 테니스 대회



2017. 2. 25 (SAT) 2:00 pm ~
HOTEL BOROBUDUR
TENNIS COURT, JAKARTA

□ 참가부문

마스터부	챌린저부	루키부	단체전
참가자격 없음	인도네시아 개최대회 마스터부 4강 진출자 참가 불가	팁 합산 테니스 구력 6년 이내	3인/팀 클립당 2팀 출전

- 랭킹 및 시드배정은 과거 재인니 대회 시합성적을 고려하여 주최측에서 결정
- 인도네시아 개최대회 마스터부 4강 진출자는 마스터부만 출전가능
- 챌린저부 참가자격이 없으나 출전선수가 60세 초과한 경우 챌린저부 출전 가능
- 여성팀은 모든 그룹 참가 가능
- 단체전의 경우 클립 회장, 총무, 최연장자, 여성회원은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 참가신청 및 참가비

- 참가 신청 마감일 : 2017. 2 18 (일)
- 팀별 60만 루피아 (현장납부 80만 루피아) / 단체전은 참가비 없음
- 입금 계좌 : MANDIRI 1260-0067-71470 (PARK JONG CHUL)

□ 시상

	우승	준우승	공동3위
마스터	상배 및 500만 루피아 상당의 상품	상배 및 200만 루피아 상당의 상품	
챌린저			60만 루피아 상당의 상품
루키	상배 및 300만 루피아 상당의 상품	상배 및 150만 루피아 상당의 상품	
단체전	500만 루피아	300만 루피아	200만 루피아

※ 참가자 전원에게 30만 루피아 상당의 기념품 증정 및 저녁식사 제공
문의 : 백종훈 이사 (+62-813-103-79792)

재인도네시아 대한테니스협회

조태영 주인니대사, KMK 방문해 한국청년들 격려



조태영 대사(맨왼쪽)과 송창근 KMK 스포츠그룹 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주인도네시아대사관]

조태영 주인도네시아대사가 땅그랑시(Tangerang)에 소재한 KMK 글로벌 스포츠그룹 공장을 방문해 송창근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환담을 나누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KMK에 채용된 우리나라 청년 직원들을 향해 목표를 갖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한상(한인경제인)으로서 2015년 세계 한상대회장을 맡기도 했던 송창

근 회장은 재외동포재단이 한상대회 계기에 매년 추진하는 해외 인턴 프로그램(한상&청년 Go Together) 등을 통해 한국 청년들을 채용해 오고 있다.

휴대폰 사용이 행동과 소비 패턴 바꾼다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가 세 번째로 큰 규모의 휴대폰 시장 보유, 다른 말로 1억 명이상이 적어도 휴대폰 한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휴대폰 사용은 전 세계를 디지털 시대로 바꿨으며, 사람들의 행동과 소비 패턴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다.

벤처 캐피탈 회사 GDP Ventures의 Danny Wirjanto 마케팅 책임자는 소셜미디어 피드가 휴대폰을 보유한 인도네시아인의 69%가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들의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바꿨다고 말했다.

대략 35%는 빈둥거리거나 무엇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29%는 TV를 시청하는 와중에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도네시아인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미팅을 하는 동안, 출퇴근 시간 및 심지어 화장실에 있는 순간에도 그들의 휴대폰을 놓지 않는다.

이렇게 휴대폰 사용이 무한대로 증가하면서 Danny는 디지털 시대에 변화한 몇 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사람들이 모험적이고, 참을성이 없어지고, 표현력이 풍부해졌고, 아는 것이 많아졌으며, 이전보다 덜 정적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이는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관심 받기를 원한다”며 “이들은 유명해지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Danny는 소셜미디어가 그들의 인맥을 넓히는 데 일조하고

배움의 방식을 바꿨으며, 심지어 사람들이 시각적인 부분을 더 중요시하도록 바꿨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전자상거래는 많은 사람을 쇼핑 중독으로 바꾸고, 공짜를 원하게 했으며 “사람들은 더 소비하고, 판매 행위를 한다. 소셜 마켓으로 인해 어디서든 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 WhatsApp, Line에는 상품과 판매자들로 넘쳐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판매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마케팅에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앞서 언급한 사람들의 특성을 이용해 나중에 이들이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 프로모션 코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Jakartaglobe.id

퇴임하는 주한 존 아 뿌라세티오 대사

- ▶주한 인도네시아 근로자 38,000명에 불법 근로자 1,500명
- ▶매년 5000명 유입 감소이유는 불법체류와 이슬람극단주의활동
- ▶"한국취업자는 행운아로 매년 1,700만루피아 저축할 수 있어"

존 아 뿌라세티오 (John A Prasetyo) 주한국 인도네시아 대사의 임기가 2017년 1월31부로 끝났다. 그는 지난 1월 6일 서울에서 detik.com 기자와 인터뷰에서 "한국취업자는 매년 1,700만루피아 저축할 수 있어 행운"이라며, "주한 인도네시아 근로자 38,000명으로 쿼터가 줄어 매년 5000명 유입하고 있으며, 감소이유는 불법체류와 이슬람극단주의활동"이라고 말했다. 디딤닷컴과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한국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특징은?

한국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은 정말 운이 좋다. 그들은 법적으로 한국인 근로자들과 월급 등에 있어 동등한 편의를 누릴 수 있어 늘 좋아 보인다.

Q. 그들이 받는 편익은 무엇이 있는가?

월급은 14,500,000루피아이며 시간 외 근무하면 매월 30,000,000루피아를 받을 수 있다. 그들은 17,000,000루피아까지 저축할 수 있고 이들이 매년 인도네시아로 송금하는 액수의 총합은 대략 7조 루피아까지 달할 수 있다.

Q. 어떻게 그토록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는가? 생활용품 등에 있어 지출이 없는지?

그들은 근무계약에 따라 주거지와 하루에 식사 두 끼가 제공되기 때문에 저축할 수 있다.

Q. 다른 국가 근로자들에 비교하면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한국 내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수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이어 38,000명으로 3번째이다. 매년 평

균적으로 5,000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오가며 올해는 4% 줄어 들었다.

Q.한국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수는 왜 줄어들었는가?

인도네시아근로자가 줄어든 이유는 두 가지다. 현재 한국에서 불법 근로자들이 지난해 5,500명이 있었고, 그전에 7,000명이 있었다. 이로 인해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Q. 불법근로자와 요구하는 근로자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체류 허가에 있어 불법 근로자가 많아 인도네시아 근로자에 대한 대한 할당이 줄어들게 되었다. 2017년 1월까지 불법 근로자가 1,500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Q.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할당이 줄어든 다른 요인은?

이슬람 극단주의와 관련이 있다. 지난해 몇몇 근로자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극단주의 단체를 돕기 위해 시

리야로 송금했으며, 마약과 관련된 근로자들도 발견되어 한국 내 근로자 할당이 줄어들게 되었다.

Q. 그러면 극단주의방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사관은 외교부, 국가 테러행위 방지청 (Badan Nasional Penanggulangan Terorisme)과 협력하고 있다.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빨라 근로자들이 극단주의 웹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대사관 측은 항상 근로자들을 감독한다.

Q. 한국에서 근로자들이 더 많이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은?

철저한 준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건강 진단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 준비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도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돕고,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도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숫자로 보는, 즐거운 여웃 무궁화

- 8 개 MGH 국제마켓지점
- 4,000 개 인도네시아 내 납품 거래처
- 1,000 개 상품용 위한 ML 보유 제품
- 80 % 한국 식품 유통 점유율
- 50 개 국내/외 식품 협력 업체
- 8 개 MGH 그룹 계열사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 2015년 유통 대리점 및 지점 현황

지금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Branches

- Senayan(021 722 2214)
- Kelapa Gading(021 453 3624)
- Medan(061 7522 1423)
- Darmawangsa(021 723 3214)
- Tangerang(021 558 2214)
- Surabaya(031 568 1046)
- Pondok Indah(021 7590 5488)
- Cikarang(021 7075 2214)

http://magunghwa.co.id

http://www.facebook.com/bestmagunghwa

Instagram: @magunghwa

새로운... 맛이 보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토박

Jl. Woltermonginsidi No.30 Jakarta Selatan

예약전화

Tel : 725-1135, 7278-0055, 7280-0753

Fax : 720-3642



한상재의 누산따라 뉴스데스크

NUSANTARA NEWS

홍수로 농작물 작황 피해

인도네시아는 날씨가 아주 이상해지는 바람에 곳곳에서 교량이 무너지고 농토와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홍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Cabe Rawit' 같은 고추 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문제를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추 농사 작황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고추에 대한 소요는 많은데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하기가 고추 값이 뛰고 있는 것이죠. 그

렇다고 농민들이 고추 값을 더 올려 받을 수도 없는 유통구조여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Cabai Rawit 소매가는 kg 당 12만 루피아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슬림 미국 반이민 정책

조코위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내 친구도 많고 사업도 인도네시아에 많으니 잘해보자고 대답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

다. TPP는 미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 무역협정입니다. 전임 Obama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 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TPP를 추진했던 것이지만 트럼

프는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이를 뒤엎어 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에 유리한 무역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번엔 7개 이슬람 국가 무슬림들의 미국 이민 금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당사국들은 물론 미국 내 반 트럼프 국민들이 반대 시위를 시작하는가 하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부유층 무슬림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 무슬림 미국 이민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자 세계 최대 이슬람 인구의 나라, 인도네시아도 충격과 분노에 빠져 들고 있습

니다. 물론 지금은 테러와 관련된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 7개 국에 한해 국민의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을 90일 동안 일시 금지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번 정책에 대해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미국 잠입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트럼프의 난민, 반 무슬림 봉쇄정책은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인도네시아 무슬림들도 중동 7개국의 무슬림들처럼 미국비자를 받을 때, 미국 입국 시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계 뇌물수수 행위 근절과 법조계 개혁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패트리알리스 악바르(Patrialis Akbar) 재판관이 부정부패 뇌물수취 혐의로 KPK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현재 재판관이 8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는 박한철 판사가 만기되면서 8명이 된 상황과 같아 졌습니다. 조코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즉시 공석이 된 현재 재판관 선임 준비를 서

둘겠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재판관 자리가 공석이 되어도 그냥 놔두고 있는 게 아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현재 판사까지 뇌물을 받고 협법 재판을 했다고 하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헌법재판소 판사까지 그렇게 뇌물을 받을 수 있느냐 하

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9명의 장관과 19명의 주사가 부정부패로 구속되었고 지난 2013년엔 아킬 모차르(Akil Mochtar) 현재 소장까지 뇌물 선거재판을 이끌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일단 법조계 뇌물수수 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2차적으로 법조계 개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FPI문제 도청사건으로 비화

사실 인도네시아 정치권도 아혹 이슬람 종교 편파 재판을 둘러싸고 우리나라 최순실 스캔들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재판 못지 않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혹 퇴진을 외치며 모나스 광장 대중 집회를 두 번씩이나 주도했던 FPI 단체장에게 가짜 뉴스를 전파한 주범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FPI 측은 아혹을 종교 편파죄로 단죄하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도요노 전 대통령이 이 두 번의 군중집

회를 뒤에서 조정한 게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MUI 이슬람직령위원회 의장이 SYB 전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을 시인했고 아혹 측이 사과를 요구하면 사과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SYB 전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을 겨냥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 전화를 도청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과 경찰, 군정보사 3곳 뿐일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야 어떻든 조코위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

코위 대통령은 변지수가 틀렸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SBY 전 대통령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지만 위란토 정치안보 장관이 '정체진 대통령 면담 절차'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크게 여당과 여당에 협력하는 야당 그룹과 SBY의 민주당이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런드라 당이 곳이나 보고 딱이나 먹자는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발 정가뉴스 현지언론 이슈

서울 발 외신으로 미국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린치 핀(Linchi Pin) 관계, 즉 한·미 동맹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축이라고 강조하는 뉴스가 크게 전해지고 있는가 하면 한국 특검이 청와

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피의자로 규명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고고도 미사일, 즉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오는 3

월 한민 연합훈련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양국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남은 건 탄핵정국의 안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묵 원료 수입하겠다? 어묵공장 원료난

인도네시아 KADIN, 즉 상공회의소가 어묵 공장용 물고기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 어묵공장의 원자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물고기를 해외에서 수입해다 인도네시아 어묵공장을 돌리도록 하

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도네시아 어장에 물고기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 준비나 대책없이 Cantrang이라고 하는 저인망 어벌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고기 수입도 못

하게 막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도네시아 어묵공장에 쓸 고기가 부족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라도 어묵용 물고기를 수입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리주지사 불법외국인 단속강화

발리 주지사는 외국인 방문비자 같은 불법 체류 비자를 가지고 지금 현재 발리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전부 내보내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경찰, 노동부 이렇게 합동으로 하나의 외국인 노동 실태 조사팀을 구성하여 감독을 하겠다

고 하는 것입니다. 발리에서 정식으로 IMTA 허가를 받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017년 현재 2,13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신문을 보니까 한국 청년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발리에 가서 일하고 돈을 벌어 세계 여행을 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런 식의 불법 노동과 체류는 이제 그만 해야 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설날을 보내고 2월의 첫 주를 맞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국인들은 보름인 11일까지 친인척이나 지인을 방문하며 세배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나라처럼 세배돈을 주는 관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붉은 색으로 된 봉투에 담아 줍니다. 물론 봉투 겉엔 복복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집보다 시내 큰 식당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들은 커다란 접시에 길게 늘어지는 국수요리를 시켜놓고 긴 젓가락으로 함께 저어가며 마치 국수처럼 얹히는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2주를 보내고 나면 보름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들은 '잡고메(Cap Go Meh)'라고 하는 보름 달맞이 행사를 더 크게 벌이기도 합니다.



글. 한상재/한인포스트 칼럼리스트

따나 또라자, 관광객을 부른다

남부 술라웨시 따나 또라자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빠뚜(Pitu)라는 곳이 외부 관광객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JK 부통령 내외가 그 곳 전통의상을 입고 마치 신선처럼 '구름 그 위에 떠있는 나라, 롤라이(Lolai)'에서 커피를 마신 후'라는 제목으로 또라자 관광상품 하나가 더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곳에 공항이 없기 때문에 모든 관광객이 마카사르에 내려 자동차로 5시간 이상을 달려 막갈레(Makale)라는 초입의 이슬람과 기독교 경쟁 마을을 지나 기독교도만 사는 란페빠오(Rantepao)라는 곳까지 가야만 또라자의 장례 풍습도 보고 아라비카 또라지 커피도 맛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즉시 기존 작은 공항을 먼저 확장해 주고 나머지 2개의 공항도 곧 건설해서 또라자 관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밀주 마시던 7명 집단사망

또 다시 버카시의 수방에서 이상한 방법으로 폭탄주를 만들어 마셨던 현지 청년 7명이 전부 사망했다고 합니다. 버카시 청년 3명은 인삼 드링크에다 초콜릿 색이 나는 알코올을 섞어 마셨다는 것이고 수방 청년 4명은 '빅 보스

(Big Boss)'라고 하는 상표의 술에 소프트 드링크를 섞어 마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Oplosan 사고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월에도 카라왕에서 9명이 이런 폭탄주를 마

시고 다 죽은 적이 있는데 동부자바바 청년들 8명도 70% 짜리 알코올에 물과 야자수, 소프트 드링크 등을 섞어 마시고 몽땅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출판제->ERP시스템 언제?

자카르타 시는 3인1 제도 대신 Electric Road Pricing System, 즉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카르타 시내교통 체증현상을 좀 덜어 보려고 했지만 자동차 번호판 출판제에서 한 발짝도 앞으

로 있습니다. 아혹 자카르타 시장이 한 때 3인1 시스템을 접고 곧장 ERP 시스템으로 교체하려고 했지만 반대 여론에 봉착해 중지한 상태입니다. ERP 시스템 도입을 반대하던 당시의 MRT 나 Trans Jkt Busway와 같은 대중

교통 수단이 어느 정도 마련되기까지는 좀더 보류해 보는 게 어떨겠느냐는 여론에 밀려 오늘까지도 ERP 시스템 시행은 전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택시와 온라인택시 협력사업

인도네시아 'Blue Bird' Taxi 회사가 GoJek Indonesia(주)와 비즈니스적 협력을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두 회사 모두 인도네시아에선 유명한 회사입니다. 블루버드는 안전한 택시의 대

명이고 고객은 인도네시아 오토바이 운송 비즈니스의 혁명을 이룬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객은 승객을 실어 나르는 비즈니스에 그치지 않고 작은 물품을 배달하기도 하고 큰 물건까지 배달할 수 있는 고트럭 비즈니스까지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

니다. 이 두 회사가 협력을 하게 되면 블루버드 택시가 GoCar 비즈니스에 진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Uber' 나 'Grab'같은 인터넷 택시들과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빨렘방CGV에 무슬림 강경단체 입장 왜?

CGV 인도네시아가 Palembang 상영관의 벨벳 클래스의 좌석을 교체해야 할지 고민이다. 침대 같은 형태의 좌석들이 성적인 행위를 조장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빨렘방 지역 당국이 접수했기 때문이다.

CGV가 제공하는 침대 같은 좌석이 놓인 벨벳 클래스는 관객들의 영화 관람에 있어 편안함을 제공한다. 두 명이상 4인 가족이 누워서 영화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있는 몇몇 CGV 극장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빨렘방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접수하고 빨렘방 Fitrianti Agustinda 부시장은 MUI 지역 단체장과 함께 CGV 벨벳 클래스 상영관을 방문한 후 이러한 형태의 좌석이 성적인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젊은 커플들이 영화를 보는 동안 어두운 환경에서 이러한 좌석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CGV 측은 침대 형태의 좌석은 단지 고객들에게 영화 관람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만약 이러한 시설을 악용하는 고객이 있으면 극장에서 퇴장당한다고 덧붙였다.

CGV는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27개의 극장을 운영하고 있다. 체인점은 2014년 상장한 Graha Layar Prima가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 최대 영화 멀



티플렉스인 CJ CGV가 21.6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파트너십은 Blitz Megaplex를 CGV로 새롭게 선보이기 위함이며, CGV는 베트남, 중국, 터키, 미국 등에서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다.

CGV 측은 현재 185개 상영관에서 2020년까지 600개 상영관으로 늘릴 계획이며 2016년에는 1천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이 극

장을 찾았다.

인도네시아가 강경한 무슬림 단체가 순수한 목적의 활동을 대중들에게 제한시키는 것은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니다. 한 예로 2015년 아체 주에서는 미혼커플이 오토바이를 같이 타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출처:Indonesia-investments>

Tutor Time Indonesia교육센터
불우 아동 학자금 3억8,200만 루피아 기부



Tutor Time Indonesia 교육센터가 1월 31일 북부 자카르타의 찢린찌 지역에 거주하는 불우 아동들을 위해 학자금 382,000,000루피아를 레드노스(Red Nose)재단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Tutor Time Indonesia 교육센터가 2016년 10월부터 자카르타 산하 9개 교육센터에서 모금했다. 레트노스 재단 Mathew Thyne 이사장은 “Tutor Time Indonesia 교육센터가 기부한 장학금은 생

각보다는 더 많다” 라고 말했다.

레드노스재단은 Tutor Time Indonesia 교육센터가 기부한 학자금을 북부 자카르타의 찢린 정 지역에서 거주하는 300명 아동에게 학자금으로 사용한다며, 12개월 교육비용으로 충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드노스재단 Meisi Kacaribu관리이사는 찢린정 지역에서 레드노스재단 교실이 하나밖에 없어 교실을 더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Tutor Time Indonesia 31

육센터는 지난 1996년에 미국 Tutor Time 교육센터의 지점으로 개설했다. 1988년에 세워진 미국 Tutor Time 교육센터는 플로리다 보카 라톤에 본사가 있다. 현재 미국 Tutor Time 교육센터의 지점은 홍콩, 인도네시아 등에 모두 200 지점이 있다. 한편, 레트노스 재단은 지난 2008년에 미국인 Dan Roberts가 세웠다.

인도네시아, Tana Toraja 개발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

Buntu Kuni 공항 개발, 도로, 교통 시스템, 전기, 호텔 확보로 200만명 관광객 기대



인도네시아 정부가 술라웨시 남부 Tana Toraja 관광 산업 개발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한다.

해양조정부 Luhut장관은 1월 30일 Jusuf Kalla 부통령과의 미팅 후 “Tana Toraja 관광 개발에 관하여 Jusuf Kalla 부통령에게 보고했다. 세계은행과 지역 대표단을 초대해 관광 개발에 대해 논하고, 통합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Luhut 장관은 정부가 2017년 집중할 지역 중 하나인 술라웨시 남부, 특히 Tana Toraja 관광 산업을 위해 인적 자원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적자원과 더불어 정부는 Tana Toraja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Buntu Kum 공항 개발 속도에도 박차를 가하고, 이외에 도로, 교통 시스템, 전기, 호텔 등의 인프라도 함께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Jusuf Kalla 부통령은 Tan
Toraja 관광 개발을 논의하기 위
해 해양 조정부, 관광부, 교통부
공공사업주택부 등 관련 부처 장
관들과 술라웨시 남부 지역 책임
자를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Luhut 장관은 이번 미팅에서 주요 논의 사항 중 하나는 2017년까지 Buntu Kuni 공항 작업 완

료라고 전했다.

Tana Toraja에 위치한 Pongtiku 공항은 활주로는 짧아 소형 항공기에 적합한 공항이지만, Buntu Kuni 공항이 완공되면 보잉과 같은 큰 항공기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Luhut 장관은 곧 1,7조 루피아의 정부 예산이 Buntu Kuni 공항 건설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정부는 2017년까지 20만 명의 관광객이 Tana Toraja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고로 2017년 1월까지 182,000명의 관광객이 Tana Toraja를 방문했다.



북부 자카르타 글라바 가딩 지역에 위치한 Grand Whiz 호텔은 수카르노 하디 국제공항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부 자카르타 감비르역에서 차로 25분 거리입니다. 4성 호텔인 Grand Whiz 호텔은 가족과 친구들이 주말을 보내기 위한 수준 높은 시설과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Happy Valentine Day
February 14th, 2017

발렌타인 커플을 위한 특별 메뉴
400,000 루피아/커플
*음료와 장미꽃 한송이포함

 Call Center
+62 21 571 0099
www.grandwhiz.com

Grand Whiz Kelapa Gading
Jalan Bukit Gading Raya Kav. 1 Kelapa Gading
North Jakarta 14240, Indonesia
P: +62 21 4587 3355 F: +62 21 4587 3200
E: reservation.kelapagading@grandwhiz.com





한인포스트 캠페인 "9505 건강한 한인사회를"

사랑의 전화

9505는 95% 한인이 경제적으로 낙오된 5%의 한인들을 돌보자는 취지입니다.
어려운 환경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잠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인동포분들에게 힘 내시라고 심시일반으로 동포들과 기업인들의 후원으로 쌀과 라면 그리고 생활필수품을 나눠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sms : (천사 구구구)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0812-1004-999

97개월째 320여명에게 사랑나눔을

"건강한 한인사회를 위한 우리 동포의 헌신에 감사"

*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쌀 5~20kg, 현지라면, 생활필수용품 1박스/매월
- 기타 - 학자금 및 생활자금
** 배달문의 : 0819-3272-4757 신국장

배달은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10개 지역으로 나눠 자원봉사자가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자원봉사 : 2017년 2월 17일(금) 오후 2시 ~ 4시 < 포장 봉사를 원하시는 분 전화주세요 >

* 장소 : 미원 본사 (021-470-4280) * 필요인원 : 10명 (사전예약 0819-3272-4757 신총무)

2016년 12월 후원자 명단

LOTTE Mart		생활용품/라면 지원 롯데마트 인도네시아 80여 박스	식료품 : 챔피언 머니체인저 *자원봉사: 박진아(미소,미지), 고양선
BWS		쌀지원 우리은행 150포대/5kg포장 땅그랑 인우회 30포대/5kg포장 무명 100포대/5kg포장	40명에게 12월 학자금 후원 - 신동수 대표 : 2,000만 루피아 - 우리컨설팅 : 500만 루피아 - 꿈이있는 교회: 200만 루피아 - 무 명: 100만 루피아 - 무 명: 50만 루피아 - 보신명가 : 매월 200만 루피아 - 최태립대표(PT.ITL) : 1000만 루피아
Miwon		미원인도네시아 :10여 식료품 80박스, 포장 및 10개 지역 배송트럭 지원	
MGH		무궁화유통 : 라면,비누등 생필품	

[한인회 회비 납부 캠페인]

한인회비를 냅시다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300,000로

각 기업, 단체, 협의회, 동호회, 동창회 등의 모임에서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200-5949	RP. A/C NO: 001-001-1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회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 1매(크기에 상관 없음)



동포안내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공지사항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비자·영주권증명서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재외투표소에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

또한, 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국적확인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218조의5㉡).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하여야 할 국적확인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시할 서류의 종류:

비자(VISA), 장기체류허가증(KITAP), 단기체류허가증(KITAS) 중 어느 하나
※ 참고로,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말소된 사람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6기 오류시정 글로벌 모니터단 모집 공고문

모니터단 소개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보와 아름다운 문화를 알리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오류시정 글로벌 모니터단(Friends of Korea)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이미지를 바로 잡고, 진정한 한국을 알리는데 열정적으로 활동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일정

- 원서접수 : 2017년 2월 1일(수)~2월 21일(화)
- 선발인원 : 50명 내외
- 합격자 발표 : 2017년 2월 28일(화)
 -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 지원서에 기재한 연락처(이메일)로 개별 통보
- 참고 :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www.factsaboutkorea.go.kr

헤리티지 고아원 방문 행사 안내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터티는 1970년부터 지금까지 46년간 인도네시아의 문화 유산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비영리 재단으로서 50여개 국가에서 온 외국인 700여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체 도서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5000여권 이상의 문화관련 영어 서적을 보유하고 있어서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된 활동은 영어로 진행되며, 박물관 지원 사업, 문화 연구 스타디, 저녁강좌, 문화탐방, 테마여행 등이 있습니다.

코리아섹션은 2007년부터 활동했으며 위에 활동과 더불어 한국에서 오신 관광객과교민을 위해 매월 정기적인 박물관 해설을 하고있으며, 열악한 환경속에 생활하는 현지인들의 삶과 문화를 느낄수있는 탐방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신제주 라인온스크립 봉사단과 협약하여 헤리티지 코리아섹션에서 쥘레곤 고아원 방문합니다.

- 일정 : 2017년 3월 2일 (목)
* 4-5명의 자원봉사자 신청 요망
1.간식,음료 나눠주기
2.인형 나눠주기
3.중고물품 수집 (옷,이불,장난감,책등등)
4.포토존 설치하여 사진찍어주기(즉석카메라준비)

주최 : 신제주 라이온스클럽과 헤리티지 코리아섹션



Your IT Solution

인도네시아 최고의
공장 시공 전문 회사

공장이전 INUS와 상담하세요

공장이전 한국인 담당자 무료 방문 상담

인도네시아 어디든지 INUS가 함께 합니다

인도네시아 전 지역 시공 가능한 유일한 회사

공장 네트워크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각종 서버 장비, 라우터등의
네트워크 장비 판매 및 설치

•광케이블 포설
광케이블 포설 장거리
무선 네트워크망 (P2P)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전용선
기업 전용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1Mb~ 10Mb까지 다양한
상품을 제공 합니다

근태/급여관리

•출퇴근 관리 시스템
RF ID 카드 방식 지문인식 방식

•급여관리 프로그램
Customizing 을
통한 맞춤형
급여관리 시스템



보안/경보 시스템

•화재 경보 시스템
수동 경보 장치, 열/연기
감지 및 자동 경보 장치



•출입통제 (Door Rock) 시스템
카드 키, 지문방식 (출퇴근관리 동
시 사용 가능)

봉제/캐드시스템

•봉제 전용 패턴 & 마커
1~4Head 다양한 플로터 판매
플로터 + 프로그램 + 디지털타저
패키지 판매 !

* 신속한 A/S 보장
< 무상수리 1년>



CCTV 보안장비

•이누스 CCTV 제품의 장점
100% 수입 국산품 !
인터넷 및 스마트폰 원격감시



•이누스 CCTV 사후관리
서비스 접수 후 48시간 이내 방문
고장 수리 시 백업 장비 지원

전화 교환기

•LG Ericsson Aria Soho
기본 3국선 / 8내선
최대 12국선 / 48내선

•LG IPECS MG 100
(IP PBX SYSTEM)
50회선 이상은
별도 상담해드립니다



사운드 시스템

•공장용 사운드 시스템
안내 및 음악 동시 방송
출 퇴근시 자동 알람



•통합 방송, 그룹방송 등
구역별 음향조절



(021)-782-3551~3



(021)-782-3554

한국인 (Mr. Hong) : 0812-8080-0424

메일 : hong@inus.co.id

2017년 제1회 ‘적도문학상’ 공모전 안내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와 한인포스트는 공동주관으로 해외에서 한국문학의 맥을 잇고 발전시켜 나갈 우수한 작가를 발굴하고 후진을 양성하고자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에 거주하는 한인과 만 15세 이상 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제1회 적도문학상을 개최합니다. 인생의 향기가 담긴 자신만의 글을 만나고 싶습니다.

- 당신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곧 문학이 됩니다-

1. 공모부문

시, 수필, 소설, 희곡

2. 응모대상

1)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

2) 만15세 이상 학생및 청소년, 외국인-한국어학과 대학생

3. 주 제

해외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야기/
외국인=한국 이야기

4. 접수기간

2017년 2월 10일~3월 20일
발표: 2017년 4월 10일 예정

★시상식은 4월 하순경 날짜는 추후공지 예정

5. 응모방법

★ 시 : 자유시 3편이상

★ 수필 : 2편
(1편분량-A4용지11포인트 3쪽내외)

★ 소설 및 희곡 :
2편 (1편 분량 A4용지 11포인트 5쪽 내외)

6. 제출처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사무국

이메일 : hansastra17@gmail.com

문의 : +62-811-910-6697/+62-811-969-1190

시상 종류	인 원	시 상	시상 대상	시상 내역
대상(적도문학상)	1	한국문인협회 본부 이사장상	성인 1명	상장 및 상금 US1,000
최 우수 상	5	(1) 재인니한국대사상 (2) 아세안 대사상 (3) 재인니한인회장상	성인 및 학생 외국인포함 총 5명	상장 및 부상
우 수 상	6	(1) 한인상공회의소회장상 (2) 한국문협인니지부장상 (3) 한인포스트 언론상 (4) 글로벌기업문학상	성인 및 학생, 외국인포함 총 6명	상장 및 부상
특 별 상	4	(1) JKT 한국국제학교교장상 (2) 인지현지대학 총장상	성인 및 학생부문 각 2명-총 4명	상장 및 부상
장 려 상	6	한국문협 인니지부상	성인 및 학생부문 각 3명-총 6명	상장 및 부상

★ 대우 및 특전 :

대상(적도문학상) 당선자는 작가등단이 인정되며, 최우수상 이상 당선자도 한국 문단에 등단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당선작은 매년 4월에 발행되는<인도네시아문학>에 게재 되며 수상자는 한국문협 인니지부 정회원으로 가입됩니다. 적도문학상 각 부문 학생 수상자는 한국대학입시에 반영되는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 수상증명서가 발행됩니다.

★ 심사규정 :

심사위원은 한국문단에 등단한 엄선한 작가들로 구성되어 당선작 발표와 함께 심사위원이 공표됩니다.

★ 주의사항 : 1. 응모작품은 지면 및 사이버공간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창작물이어야 함.
2. 표절 및 저작권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선을 취소하며 법적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3. 응모작의 맨 앞에 이름, 거주지, 생년월일과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4. 응모작품은 마감기일을 엄수하며 작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관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HanInPost

한인포스트

Jinju

BPOM RI ML No. : 843209018198

대한민국 국민간식!

전하장사

1등은 다르다! 대한민국 국민간식
50년 전통의 진주햄 전하장사
인도네시아 정식허가 수입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만나세요

1박스 : 50g X 10

한국 슈퍼에서 구입 가능

“자기전 2포씩 삼일간 드신후
효과를 못 보신다면
반품 받겠습니다”

행사기간: 2017.02.28까지 6포 1box를 더 드립니다.

복분자를 먹고 요강을 옆었다고 복분자(覆盆子)
라고 불리었답니다
그 복분자가 정식허가를 받아 인도네시아에 출시 합니다

구정
선물세트

비고창
숙분자

비고창
숙분자

1박스 : 80ml X 30

판매대리점 모집중 PT Food Star Global
판매대리점 문의 Kokan PERMATA Blok E35, Kelapa Gading - Jakarta Utara
(밴드대리점 가능) Telp : 021-45860519/21 Fax : 021-45860520

PT. FOODSTAR
GLOBAL

Snow Bay
The Real Waterpark

My
Valentine
Day

한쌍을 위한
특별 발렌타인 데이
패키지

2017년 2월
유효 패키지

195,000 루피아
한쌍 Snowbay 티켓
점심 [밥 + 크르스피 닭고기튀김]

Snowbay에서 파트너와 사랑의 날을 노래하세요

2월 12일 일요일
10쌍 커플 점심 패키지를 소셜미디어에서 받으세요
발렌타인 공파 풍선을 받으세요
초콜릿 선물 받으세요

생일파티, 학교모임, 가족모임, 회사모임은 스노베이로 오세요
SnowBay The Real Waterpark Taman Mini Indonesia Indah
Phone (021) 8778 3530

http://www.snowbay.co.id

SNOWBAYID

snowbaywaterpark

SnowBayWaterpark TMI

FTA보다 낮은 관세혜택이 온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하반기 발효
수출입 때 더 유리한 세율 적용 가능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APTA) 협상이 타결됐다. 각국의 각료들은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2007년부터 진행해온 APTA 제4라운드 협정 개정문에 최종 서명하고 APTA 발전방향 등을 담은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APTA 제4라운드는 지난 2016년 9월 제49차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회원국이 관세양허안에 최종 합의함에 따른 것이다. APTA 제4라운드는 모든 회원국의 국내 이행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APTA는 아시아태평양의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와 교역 확대를 회원국의 경제 발전을 위

한 무역협정으로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며 몽골이 가입절차에 있다.

이번 협상타결로 관세양허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중국, 인도는 전체 품목 중 약 30% 품목의 관세를 평균 33% 감축했고 스리랑카, 몽골 등 기타 국가는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양허하기로 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중국, 인도 등은 총 품목 수 28~29%에 대해 평균 관세율을 종전대비 33%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협정으로 APTA와 한중 FTA 세율 중 유리한 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석유제품의 세율은 APTA

5.6%, FTA 6.4%이며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은(2.5% vs 3.5%), 원동기 및 펌프(6.5% vs 8.5%), 축전지(9.6% vs 10.6%) 등으로 약 1200여개 품목이 한-중 FTA 세율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규칙도 개정됐다. 기존에 적용됐던 부가가치 기준(RVC 45%) 이외에 156개(HS 6단위 659개) 품목에 대해 세 변경기준이 적용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 금속제품, 플라스틱제품 등의 원산지 증명이 간편해진다.

기획재정부는 “한-인도 CEPA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도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해져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한-인도 CEPA 원산지 기준은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제품, 섬유제품에 대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APTA 서명으로 이런 어려움이 해소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차관은 “APTA가 기존에 체결한 FTA를 보완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의 28%, 수입의 21%를 차지하는 아·태 지역 개도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산재 뿜어내는 인도네시아 시나봉 화산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주(州) 카로 지역에 있는 시나봉 화산의 분화하고 있다. 시나봉 화산은 지난 5일 하루 동안 7차례 분화해 상공 5천m까지 화산재를 뿜어 올렸다.

신한카드 ‘신한 하이캐쉬 카드’ 신용카드 출시

인니진출 한인마켓 5% 일반기업3% 적립 혜택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신용카드 사업 승인을 받은 신한카드가 인도네시아에 한국 기업이 사용하면 포인트 혜택을 주는 카드를 내놨다.

신한카드는 인도네시아에서 내놓는 첫 번째 카드로 ‘신한 하이캐쉬 카드’를 내놨다고 6일 밝혔다.

신한카드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신한인도파이낸스’는 지난해 12월 신용카드 사업 승인을 받았다. 국내 카드사가 해외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업을 승인받은 것은 신한카드가 처음이다.

‘신한 하이캐쉬 카드’는 신한카드의 현지 파트너인 살림 그룹의 계열사를 비롯해 삼성전자, 롯데마트, CGV 등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결제하면 사용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병원, 여행사, 외식 등 인도네시아 고객들이 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업종에서 3%를 적립해 준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신한인도파이낸스의 신상품 출시를 계기로 살림 그룹의 파트너십과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와의 공조를 통해 5년 이내에 인도네시아 카드시장 선두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카드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신용카드사업 런칭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왼쪽에서 세번째), 주석 인도모빌그룹 대표(왼쪽에서 두번째), 김대영 신한인도파이낸스 법인장(왼쪽에서 첫번째), 수브론토 인도모빌그룹 감사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탄김표 신한인도파이낸스 부사장(왼쪽에서 다섯번째)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www.zimmoah.com

ZIMMOAH

WE DELIVER EVERYTHING, EVERYWHERE!

EXPERT IN TRANSPORTATION

Direct LCL • CONSOLIDATION

HONG KONG 2 times a week	BUSAN 2 times a week
JAKARTA	HOCHIMINH weekly
SHANGHAI weekly	LA • NEW YORK weekly

DIRECT PHONE (62-21) 2936 5212 (Inbound)
(62-21) 2936 5302 (Outbound)

Air Cargo Specialist

DIRECT PHONE (62-21) 2936 5308

PT. ZIMMOAH MARINE TRANS

Kirana Commercial Avenue, Jl. Kirana Avenue 2 Blok D2 No. 10-11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 : (62-21) 2937 5670 (Hunting) Fax : (62-21) 2937 5671
E-mail : zimmoah@zimmoah.com www.zimmoah.com

BRANCH OFFICE

SEMARANG	+62 24 351 7198	semarang@zimmoah.com
AIRPORT	+62 21 5591 1853	aircargo@zimmoah.com
HOCHIMINH	+84 12 0777 6564	cskim@cargobuslogitec.com
HANOI	+84 4 3221 6431	hanoi@cargobuslogitech.com

KOREAN AIR

ASIANA AIRLINES

Garuda Indonesia
The Airline of Indonesia

CHINA AIRLINES

QANTAS

ETIHAD AIRWAYS PARTNER

Emirates

투자 및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지방 정부로부터 필요한 허가 획득이 가장 어렵다"
각종 인프라개선에서 인허가 획득으로 다시 원위치

과거	현재
인프라 개발의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의 부족 => 물류비용 상승 => 인도네시아 기업 경쟁력 약화	인프라 개선 노력 양호 중앙정부 각종 규제 완화가 지방 정부 단계에서는 미적용



〈복잡한 환경영향평가서류 인허가 절차〉

지방자치체 감시단(이하 KPPOD)이 전국에 걸쳐 32개 지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투자 혹은 사업을 할에 있어서 인프라 개발 부족, 인적 자원의 질 부족, 부패 혹은 보호무역주의 등이 아닌 지방 정부로부터 필요한 허가 획득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Indonesia-investments.com이 보도한 이번 내용은 꽤나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는 투자 및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형식적이고 번거로운 절차들을 없애는데 힘써왔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2015년 9월 이후부터 중앙 정부가 발표한 경제 정책 패키지에는 규제 완화를 위한 개선 사항들이 꽤 있었다.

KPPOD의 Boedi Rheza 선임 연구원은 최근 KPPOD 설문 결과는 이전 설문 결과와는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이전 결과들을 보면 사업가들은 인프라 개발의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의 부족에 고초를 겪었다. 이 걸림돌은 물류비용을 상승시켰고,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물론 아직까지 인프라 개발이 많이 필요하지만, 중앙 정부는 최근 이 부분에 있어 눈에 띄게 노력해왔다. Rheza는 정부의 이러한 긍정적인 정책기조가 최근 설문에서 인프라 부족이 4위로 내려간 요인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가들은 가장 큰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시행한 규제 완화가 지방 정부 단계까지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신규 회사 등록에 대한 비용을 삭감했을지라도 중앙 정부는 여전히 비용을 요구한다. 이는 특히 자본이 한정적인 중소기업들에게 큰 문제다. 또 다른 예로는 신규 회사 등록 기간이 5일 걸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14일 가량 걸린다는 점이 있다. 심지어 파푸아 지역의 경우, 118일 걸린 사례도 있다. 이러한 요인이 사업가들로 하여금 회사 등록을 안 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점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큰 문제인 것이다.

인도네시아 내 투자 및 사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 9가지는 다음과 같다.

- 오래 걸리고, 비싸고, 복잡한 허가 절차
- 민간 기업 개발 프로그램
- 지방 정부와 기업가들 간 상호작용
- 인프라 개발 부족
- 높은 거래 비용
- 취약한 인적 자원
- 토지소유 관련 접근성 및 확실성
- 갈등 해결
- 지방 정부의 질과 청렴함

〈기사 한인포스트〉

하리 MNC회장 “미국 관계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어”

인도네시아 억만장자이자 트럼프 그룹이 관리할 고급 리조트를 짓는 Hary Tanoesoedibjo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국가 간의 관계에 만약 필요하다면 도와줄 수 있다"고 2월 3일 밝혔다.

MNC 그룹의 회장인 Hary는 트럼프 그룹의 자회사 트럼프 호텔 컬렉션이 관리할 고급 리조트 두 곳을 인도네시아에 짓고 있다.

지난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되어 참석한 Hary회장은 인도네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는 추측이 돌았다.

그는 “트럼프 그룹과는 비즈니스 관계이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하지만 필요하다면, 내가 도울 수 있다”고 전했다.

사실 인도네시아 몇몇 리더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7개 무슬림 국가에 대해 90일 동안 방문을 불허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이 7개 국가에 속하진 않았으나 Jusuf Kalla 부통령은 이번 정책이 무슬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Retno Marsudi 장관 또한 미국에 입국하는 무슬림에 대한 “극단적인 정책”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Hary 회장은 정치적 야망도 가지고 있다. 그는 내년이 지나기 전까지 2019년 인도네시아 대선에 뛰어들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MNC 그룹은 향후 5년간 30조 루피아에 달하는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기사출처: 로이터 통신, Jakartaglobe)

“예산 지출 비효율 여전히 존재…의사소통 필요”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대통령은 각 부처와 기관이 같은 분야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지출 면에 있어 비효율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장관들과 기관장들에게 일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역 행정부 간 시너지, 조정 및 통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Antara통신은 보도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각 부처

와 기관이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을 장관들에게 당부한 조코위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라고 회의에서 강조했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은 모든 부처와 기관이 대중들과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지만, 의사소통이 부족하다. 대중들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제약 사항 등을 사람들에게 알려 그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조코위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잘못된 정보에 답변하고, 올바른 설명으로 바로잡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언론이 잘못 발표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허위 정보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생산활동, 개선과 우려의 지속

2017년 1월 인도네시아 생산 활동이 개선됐다. 니케이(Nikkei) 구매관리자지수(이하 PMI)는 2017년 1월 50.4로, 전월 49.0에 비해 증가했다. 여기서 50을 넘는 수치는 국가 제조산업의 확장을, 50 미만은 수축을 의미한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제조분야에 있어 3개월 동안의 수축이 끝났다.

1월 인도네시아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취수 설비 반등에 힘입어 생산량이 증가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구매 활동을 제한하는 강력한 비용 증가로 인해 이 반등은 의미가 퇴색되기도 했다.

새로운 수주 증가는 국내 수요에 기인했다. 그러나 사실 새로운 수출 주문량은 4개월째 수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제조업체의 경쟁력 하락 탓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제조업체들이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비용 증가는 석유, 제지, 화학, 섬유, 금속, 플라스틱 가격이 높아진 것에 비롯됐다. 인도네시아의 인플레이션은 11개월째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몇몇 기업은 추가 비용의 일부분을 고객들에게 전가했다.

한편 기술 개발로 인해 인도네시아 제조업체의 2017년 1월 고용은 하락했다. 제조업체의 수출률은 미미하지만, 실업률은 가장 빠르기도 하다.

하지만 제조 업체들은 낙관적이다.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관련자들의 82%는 올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제품 출시, 사업 확장 계획, 더 나은

마케팅 캠페인 등이 이러한 낙관을 부추기는 요인들이다.

HIS Markit의 Pollyanna De Lima 경제학자는 새로운 작업 증가가 생산 증가를 이끌고, 이것이 사업 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PMI 자료는 이러한 호전은 수출 주문량 감소했기 때문에, 국내가 주도했음을 보여줬다. De Lima는 세계 경제를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의 연속을 봤을 때 무역 트렌드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반면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몇 년간 금리를 낮췄고, 이는 소비자 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생산 경쟁력 강화목적 가스 수입… 석탄 가스화 대안도 고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산업을 위해 더 많은 가스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가스 가격에 대한 압력을 낮추기 위함이다. 많은 제조업 종사자들은 그동안 높은 국내 가스 가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다. 높은 생산 비용을 야기하고 이것이 결국 경쟁력을 낮추기도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제조업에 투자하기 이전에 재고하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산업부 산하에 있는 화학공업 업스트림 Muhammad Khayam 부장은 정부의 새 정책으로 인해 현지 산업이 더욱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가스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책이 일시적이며,

기간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중앙 정부는 LNG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가스 업스트림 분야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가스에 대한 수요를 보호하기 위해 현지 기업들이 과도한 가스 수입을 하지는 못하게 할 계획이다. Khayam은 아직 인도네시아에 Bintuni bay나 Masela block처럼 가스 매장량이 충분히 있으나 활용하는데 15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가스 수입을 철강, 석유화학, 비료 분야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이다. 가스 수입이 인도네시아 무역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 완전히 계산하지는 않았으나 Khayam에 따르면 가스 수입량이 엄청나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대안으로 정부는 석탄 가스화 증가도 고려하고 있다. 석탄 가스화를 통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이기도 하다.

참고로 일찍이 조코위 대통령은 국내 가스 가격을 현재 mmbtu당 9.5~12달러 수준에서 5~6달러로 낮추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의 높은 가스 가격이 세계 무역에 있어서 국내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낮추기 때문이다. 〈출처: Indonesia-investments〉

정부 및 기업가 “올해 경제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

2016년 국가 대외 부채 1,615억4,300만 달러
2016년 국내외 투자 612조 8,000억 루피아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현재 정국이 혼란스럽다. 아후즈지사의 이슬람교 신성 모독 사건은 사회에서 큰 파장과 반발을 일으켰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기업가들은 올해 경제가 지난해 경제보다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킬 것을 확신한다고 Kompas신문이 2월 2일 보도했다.

기업가들이 올해 경제를 낙관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한 가지는 인프라 발전이다. 정부가 2017년 목표 경제성장률을 5.1%인 것을 정한 것을 보면 정부 역시 올해 경제에 대해 긍정적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경제 분야에 관한 보도는 정부가 2017년 경제가 2016년 경제보다 더 좋다고 확신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 은행 신용대출에 대해서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13.7% 성장했고, 금융감독원(OJK)은 9 - 12%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 은행 신용대출은 2016년 경제성장에 7.8% 기여했다.
- 2016년 은행 신용대출은 4,401 조 루피아였다.
- 2016년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대출은 802조1,000억 루피아로 연간 8.4% 성장했으며,

부동산 분야의 사업을 위한 신용대출은 713조4,000억 루피아로 15% 성장했다.

- 중앙은행이 발표한 국가 대외 부채는 2015년 1,682억 1,100 만 달러에서 2016년 1,615억4,300만 달러로 감소했다.
- 투자조정청(BKPM)의 발표한 2016년 투자액은 612조 8,000억 루피아로, 216조2,000억 루피아는 국내 투자이며 393조 6,000억 루피아는 해외 투자다.

HanInPost

한인포스트

인쇄비 인상으로
월 4회 구독료를
25만 루피아로 인상합니다.

광고 및 구독 문의

PT.Hannahpress Indonesia
Tel: 021-4586-9199, 4586-9057
Fax: 021-4586-9198, HP.0812-1004-999
e-Mail: haninpost@gmail.com
www.haninpost.com

현대로템, 자카르타 경전철 수주... 아시안게임 노선에 투입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종합중공업회사인 현대로템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정부 토지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경전철 16량 사업을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금액은 약 3300만 달러이며 추가 옵션 물량까지 합산하면 총 금액은 약 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자카르타 경전철 16량(2량 8편성)은 2018년 8월 개막하는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수도 자카르타 지역에 신설되는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며, 현대로템이 이번에 수주한 경전철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경전철이다.

자카르타는 대중교통 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경전철은 아시안게임 관람객 수송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현대로템은 고품질의 안전한 경전철을 납품해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개최를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산 경전철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현대로템은 아시안게임이 개막하기 전인 내년 7월 첫 편성 납품을 시작으로 같은해 10월까지 모든 차량을 납품할 예정이다. 납품된 차량은 1단계 구간인 선수촌~경기장(총연장 5.8km, 5개 역사) 구간에서 운행하게 되며 옵션 110량은 향후 발주가 결정될 시 운행구간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휠체어 고정 설비, 유모차 탑승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 승객 편의시설을 강화, 아시안게임 승객 수송에 만전을 기함과 함께 아시안게임 이후 일반 승객 수송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된다.

특히 이번 수주는 현대로템이 국내 협력사와의 첫 동반 해외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대로템은 입찰 단계부터 국내 협력사와의 동반 해외진출을 목표로 국내 철도차량 및 부품제조사인 우진산전과 함께 입찰에 뛰어들었다. 납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이번 사업 특성을 고려해 현대로템은 전체적인 사업 관리를 비롯한 차량



설계 및 주행장치 공급을 맡고 우진산전은 차량 제작과 시운전을 중심으로 분업해 사업 수행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인도네시아 철도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자카르타 경전철 16량을 수주하며 해당 사업의 연장선으로 연내 발주가 기대되는 옵션 110량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이번 수주를 비롯해 향후 인도네시아에서 발주될 철도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원도 후속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에도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등 각 분야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수주 원동력이 됐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로템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추가 수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특히 다가올 아시안게임에서 승객 수송에 큰 역할을 할 예정인만큼 협력사와 함께 고품질의 안전한 차량 제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지가 켜는 인도네시아 경제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는 정부의 지출 확대, 원자재 가격 반등, 환율 안정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올해 유망 산업으로는 외국인 투자가 개방된 제약, 전자상거래, 창조산업 등이 꼽히고 있다. 반면 석유, 가스 등 화석 연료 채취나 광물원석 수출 등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적 불확

실성과 관련 법령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경제는 2015년에 4.7%로 바닥을 찍고 작년 4분기부터 반등 추세를 보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2016년 추정치를 5.1%, 올해 예상치를 5.2%로 각각 내놨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ADB),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올해 전망치를 5.0~5.1%에서 5.1~5.3%로 예측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우선 낮은 물가가 지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인플레이션은 작년 1월 4.14%에서 10월의 3.31%에서 보는 것처럼 낮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 운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안정세를 보이는 환율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달러 대비 환율은 2016년 1월 1만3967루피아에서 10월 1만3075루피아로 가치가 꾸준히 올라갔지만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5월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외국인 투자제한 리스트를 공개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필요한 관광 및 창조경제, 정보통신, 교통·운송,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했다. 이들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크면서도 국내 자본만으로는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올해부터는 외국인 투자에 힘입어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인프라 사업 본격화와 2018년 아세안 게임 개최에 따른 건설업도 유망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 경제는 최근 단행된 미국의 금리 인상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따라 자본 유출, 수출 둔화가 우려되지만 탄탄한 내수시장과 인프라 개발에 따른 정부 재정 집행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자가 개방된 의약품 원료 제조, 냉동창고 등의 분야에는 이미 다수 외국 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는 2억4000만 명의 거대 시장을 놓고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 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시장인 것이다.

<신제품 소개>

의류공장 천 폐기물 Threadsol로 해결... 10% 생산비 절감

Threadsol이란 의류공장에 천 폐기물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물이다.

Threadsol를 사용하면 생산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인도, 스리랑카, 베트남,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의 의류공장에서는 Threadsol를 사용하며 한 의류공장은 3년 동안 생산비를 10% 절감했다.

싱가포르에서 제작된 Threadsol은 지난 6개월 전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한국의 PT Daese Garmin사, PT Ameya사, PT Pan Brothers사, PT Master Indo사가 2월부터 의류공장에서 Threadsol을 사용하게 됐다. 이들은 생산비 10%



를 아낌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키울 수 있게 됐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섬유와 의류를 생산하는 국가 중 10위이며 세계 시장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 5위권을 목표로 섬유와 의류산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30년 쯤 세계 의류 시장 5%를 차지하여 수출액이 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사제공 Threadsol)

<주간환율>

원자재 가격 반등, 미국의 경제성장 기초, 인도네시아 경제적 여건 개선으로 인한 낙관



2월 6일 기준으로 달러 대비 인도네시아 루피아 가치가 상승했다. 블룸버그 달러 지수에 따르면 루피아는 0.13% 상승하여 1달러당 13,325루피아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원자재 가격 반등 및 예상보다 느린 미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기초 여건 개선으로 인한 낙관이 루피아 환율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른 아시아 신흥 시장 통화 가치도 달러 대비 상승했다.

미국의 4분기 경제성장은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랐다. 2016년 4분기 미국 GDP는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사업 투자 증가와 함께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는 꾸준했지만 대두 선적량 급락

이 지난 2016년 4분기 미국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미국의 동향은 연방 준비은행이 통화정책을 긴축시키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곧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신흥시장이 단기 간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유가와 관련하여 미국의 이란 제재(탄도미사일 실험)로 인해 원유 공급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 미국에는 큰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다. 유가 상승은 일반적으로 다른 원자재 가격 상승을 야기하기 때문에, 원자재 수출국 인도네시아에는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출처: Indonesia-investment>



PT. HD FORKLIFT INDONESIA
Hyundai Official Agent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Website : www.hyundai-hi.co.kr

현대중공업 지게차가 걸어온 지난 4년
고객님들의 후원과 사랑으로 성장 했습니다.
감사함을 가슴깊이 새기고 인도네시아
시장확대에 본격적으로 주력하겠습니다.

고객서비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지게차는 고객 서비스에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변함없이 2016년에도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실현했습니다.

- ★ 2016년 총 무상정점 서비스 횟수 : 1,037회
1일 평균 3개사 방문, 무상 정점 서비스 실행
- ★ 가장 정수 후, 수리처리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일내 처리율 : 72% (77%)
- ◆ 2일내 처리율 : 18% (13%)
- ◆ 3일내 처리율 : 8% (7%)
- ◆ 4일 이상 처리율 : 2% (3%)
- ※ () 는 2015년 실적

어느덧 고객들은 현대지게차 서비스에 만족 합니다.
폭넓게 걸어온 지난 4년, 이제는 어떻게 고객서비스를
해야하는지 알게되었고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Hyundai Forklift <바로서비스, BARU SERVICE>

인도네시아 전국에 10개 직영딜러방 구축과 판매,
AS 확대를 위해 계속 전진할 것 입니다.

PT. Hyundai Forklift Indonesia 임직원 배상

<Hyundai Forklift Office Service Team>

Marketing PIC : Ms. Mitba (0878-8870-8790)
After Service PIC : Ms. Ratna (0813-4145-7872)
Korean Desk PIC : Mr. Park (0821-3534-3214)

Korea Style Service
프로그램

바로서비스
BARU Service

24시간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1
무상보수기간 1년 또는 1,500시간

24시간
부품공급 48시간 이내 완료

1
From Hyundai : 날거자전, 무동지연시 무상연보

구별 지게차 폐업 서비스

■ PLD47 : J. Kardiyo Hutan Tpa Wre 6 Km 825 Km 1 180 Km Hutan School Hutan Bdg. ☎ 021-7961-0987, 0987 ☎ hantakid@gmail.com ■ Bandung Cabang : J. Jirisan No. 314, Bandung, 40139 Marketing PIC, Mr. Yudi Priatna ☎ 021-952-1998, 1998 ☎ yudi@hyundai.co.kr ■ Bandung Cabang : J. Changsan No. 100, Bandung, 40139 Marketing PIC, Mr. Yudi ☎ 021-952-1998, 1998 ☎ yudi@hyunda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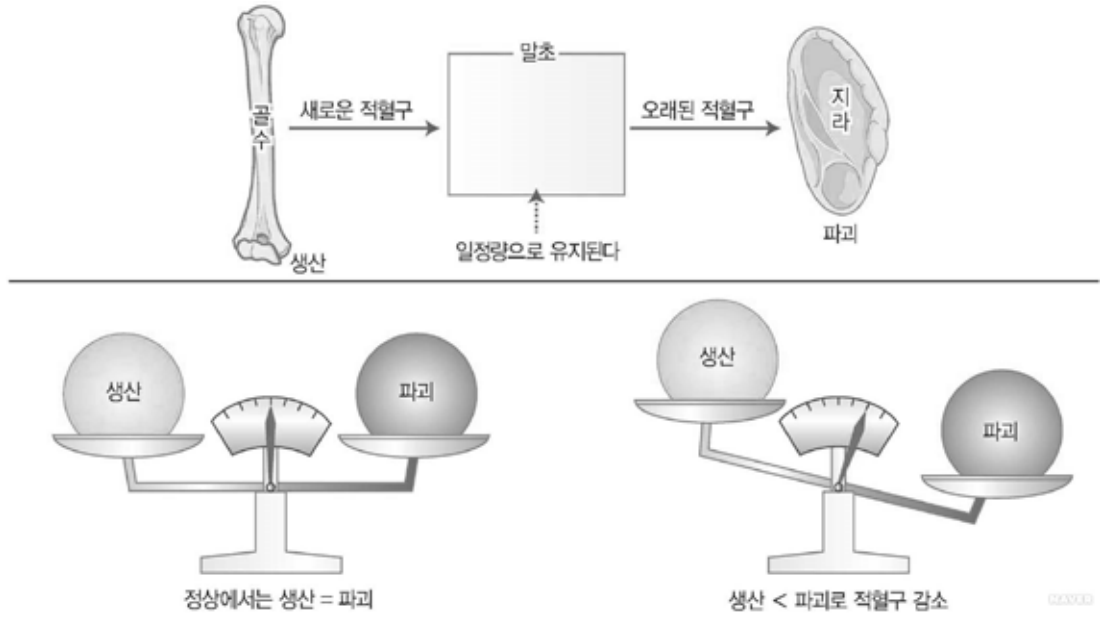
<신농씨 한방병원 건강칼럼>

빈혈에 대해서

우리 몸에는 약 5l (체중의 8% 정도)의 혈액이 흐릅니다. 혈액은 혈장이라는 액체 성분과 혈액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세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체 혈액의 40~50% 정도를 차지하는 혈액세포에는 대부분 적혈구가 차지하고 있는데, 피가 붉은 이유도 적혈구가 붉기 때문입니다. 이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헤모글로빈 또는 적혈구가 부족한 상태를 빈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빈혈이란 어떤 원인으로 인해 혈액이 인체 조직의 대사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조직의 저산소증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일은 혈액 내의 적혈구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적혈구 내의 혈액소(헤모글로빈)를 기준으로 하여 빈혈을 진단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남자 성인의 경우 혈액소 농도가 13g/dL, 여자 성인의 경우 12g/dL, 6~16세 사이의 청소년은 12g/dL, 6개월에서 6세 미만의 소아는 11g/dL, 임산부는 11g/dL 미만인 경우를 빈혈로 정의하였습니다. 빈혈이 심해지면, 어지럼 외에도 기운이 없거나 가슴 두근거림도 잘 나타나는 편입니다. 빈혈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식생활 불균형이나, 월경으로 인한 철분부족, 위.십이지장 궤양, 위나 대장 등의 소화기관에 출혈이 생겼을 때와 자궁근종 등으로 인한 월경과다가 주요 원인입니다. 빈혈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혈허(血虛)’와 그 원인과 증상에 있어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혈허라는 변증개념은, 빈혈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혈액검사로 구조적인 이상이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아무 수치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치료 대상으로 간주하고 회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비위가 약해져 제대로 먹지 못해 혈허 증상이 나타났다면 비위를 강화시켜 입맛을 좋게 하고, 생리불순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있으면 생리를 정상적으로 조절해 줍니다. 또한, 심장이 약해져서 혈액을 주관하지 못하면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피가 새면 콩팥을 튼튼하게 해 줍니다. 이는 모든 병증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 근본을 치료하려는 한의학의 치료개념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빈혈의 치료는 한의학적 접근으로 치료가 잘 되는 편이나, 치료 후에도 쉽게 재발되므로 빈혈 증세가 없어졌다 해도 6개월 이상 식이요법을 지속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빈혈 환자의 식이요법>

- 빈혈환자는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나 소화능력에 맞춰 영양가가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육류의 고기, 알, 생선, 우유 제품 등과 신선한 채소, 과일 등을 선택하고, 고기나 채소를 같이 섞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 동물의 간, 골수, 피 또는 대추, 당근 등은 피를 보강하는 힘이 크므로 평소에 자주 먹는 것이 유익합니다.
- 식이욕이 없거나 잘 못 먹어서 생긴 빈혈에는, 식단 짤 때 환자가 좋아하는 걸 중심으로 만들고, 그 음식량을 늘려 많이 먹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철분결핍성 빈혈은 곡류보다는 육류를 통해 흡수하는 게 좋으며, 식사 때마다 고기, 생선, 두부 중 한 가지 이상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철분이 강화된 시리얼 등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우유에는 다량의 철분이 들어있지만 실제 흡수되는 철분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에 들어있는 짙 성분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위장관을 자극해 출혈을 일으킬 쉬우므로, 속(위장)이 아픈 사람이라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커피나 녹차, 감속에 들어있는 탄닌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므로, 식사 후 적어도 1시간 동안은 차를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술은 모든 영양소 특히 비타민B 군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빈혈의 원인이 되므로 가능한 금주를 하며, 가능하면 음주 횟수를 주 1-2회로 줄이도록 합니다.
- 패스트푸드, 라면, 냉동식품을 장기간 먹으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짙은 결석은 빈혈의 원인이 되므로 하루 세 끼를 꼭 챙겨 먹습니다.
- 동물성음식이 철분의 체내 흡수량이 좋습니다.
- 철분함량 많은 음식 - 콩류,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대추, 복숭아, 조개류, 굴, 생선류(미꾸라지, 굴비, 전어, 꽂치, 청어, 게 등), 들깨잎, 쑥, 무청, 두릅, 근대, 아욱, 시금치, 쑥갓, 미나리, 호박 등.

신농씨한방병원

"교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일요일 오후진료를 실시합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한 한방치료

***진료과목**
급만성통증(요통,견통,두통,무릎통증)
각종 내과질환(소화기,호흡기 전문)
심장병,중풍 클리닉
소아성장, 수험생 클리닉
부인과 클리닉(갱년기 증후군, 생리불순, 불임)
면역강화 프로그램(잡은감기,설사,만성피로)

평 일 - 9:30 ~ 6:00 (목요일은 12:00까지)
토요일 - 9:30 ~ 3:00
일요일 - 오후 1:00 ~ 5:00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신농씨 한방병원'을 검색해서 가입하시면 건강 산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원장 최정(한의사 면허번호 12721)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의학 석사
대한 한의학회 방제학회 회원
대한 한의학회 면역약침학회 회원

위치: 위자야 다르마왕사 스커어 맞은편 다르마왕사 루꼬(시티안경원 옆)

전화번호 : 7279-1965/ 7278-0563

주관 세무 이슈

김재훈 세무컨설턴트와 함께하는

<문의 : kimjhoon@bngconsulting.co.kr>

접대비의 손금 산입시 주의할 사항

지출 경비에 대해 비용 인정 여부는 인도네시아 세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소득 창출 또는 유지를 위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손금산입(비용으로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별도로 소득세법 9조에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항목이 규정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접대비는 국세청 회람 (SE-27/PJ.22/1986) 에 언급되어 있는데 비용 인정 여부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자진 신고시 접대비에 대해 손금부인(비용으로 인정 받지 않음)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접대비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접대비 명세는 접대 받는 날짜, 장소, 주소, 업종, 금액과 접대 받는 자의 성명, 직위, 회사명, 업종을 기록하여 법인세 신고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상기 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반드시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고는 아니다. 세무공무원의 판단(재량)하에 상가 비용을 개인 용도의 비용으로 부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진 신고시에는 접대비를 손금산입(비용으로 처리)하였는데 세무조사시 접대비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금액만큼 비용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이로 인하여 추가 납부할 법인세가 발생된다면 추가 납부할 세금에 다시 1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대부분이 자진 신고시 접대비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는 상기와 같은 이유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cr : 한국일보

SKY ACADEMY

JIKS 학생들을 위한

2차 겨울특강

국제학교 학생들이 **100%** 만족한 1차 특강의 기를 이어갑니다.

12학년 TOEFL & SAT 점수 획득을 위한 마지막 기회!

방학특강 수강
POM학생 (JIS 11학년)

86 → **111**
TOEFL 25점 향상

정규수업+방학특강 수강
JOH학생 (SIS 10학년)

64 → **103**
TOEFL 39점 향상

스카이가카데미는 학생들의 확실한 TOEFL & SAT 실력향상을 위해

- 2명의 전문가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 1명의 관리 선생님이 꼼꼼하게
- 최신기출문제와 다양한 Tip으로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SKY학원은 각 분야 전공 선생님이 목표 점수만 바라보고 가르칩니다.

국제자연환경교육재단, 인도네시아 교육봉사활동 가져



한국 초중고 교사와 청소년들
로 이루어진 국제자연환경교육재
단(홈페이지 <http://www.i-see.or.kr>) 소속 20여 자원봉사자
가 지난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2017 인도네시아 교육봉사 및 생
태문화 체험 활동을 가졌다.

이번 봉사단은 자카르타 근교
센톨지역 초등학교와 생태 숲 교
육센터, 보고르 신당바랑 민속
촌, 보고르 식물원, 훈작 국립공

원 트레킹, 라즈나 코이카 봉사
지역 고아원에서 활동하고, 라즈
나 사무소에서 망고나무 기념식
수를 했다.

지난해 국제자연환경교육재
단은 미얀마 카이린 초등학교에
300명 이상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기를 설치해 주기
도 했다.

한편, 이번 인도네시아 행사 진
행을 맡은 Prima Biz Indonesia

Consulting & Tour에 따르면 매
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
해 아시아 지역 학교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초중고 교
사 봉사팀은, 이번 교육봉사에 총
250명 학생들에게 에코백과 노트
그리고 학용품 세트를 선물로 증
정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Prima Biz Indonesia
Consulting & Tour>



헤리티지 코리안섹션 - 동아대학교 MOU 체결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홍보 언론사 기자 간담회



헤리티지 코리안섹션(회장 이수진)은 지난 1
월 26일 헤리티지 도서관에서 동아대학교 인문역
량강화사업단(CORE-단장 박은경) MOU 체결과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홍보 관련 언론사 기자 간
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인니 한인회와 여성회 인사
와 몇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헤리
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안섹션의 활동 소개와 동아
대학교 MUO체결 의의에 관하여 토론식으로 기
자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헤리티지 코리안섹션은 2007년부터 활동을 시
작하여 헤리티지 탐방과 박물관 안내 활동, 스쿨
프로그램, 국립박물관 투어와 가이드북 제작 및
출간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동아대학교의 인문역량강화사업단(CORE)은
전국 4년제 대학 중 19개 대학이 선정되어 교육
부 후원아래 출범되어 인문역량 강화 사업의 일
환으로써 다양한 전공과 인문학적 소양을 융합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비교과 인턴십프로그램
개발하였고 현재 미국 하와이, 중국 상해,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 등 해외 5개국가로 인턴십 프
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오고간 질의응답은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인도네시아의 현재의 영토로 통일시킨 역사상
가장 황금기인 마자빠히트 왕국(1297~1505)과 수마
트라 남부 팅렝방을 중심으로 한 해상제국 스리
위자야(6세기~13세기) 왕국과 네덜란드 식민화
과정,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섬에 대한 역사설명

으로 포르투갈의 선제 공격및 지배 등에 대한 설
명이 있었다. 네덜란드의 우회적인 통치방법과 회
유책을 통해 경제적 침략과 거의 315년의 지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에 대한 견해가 호의
적인 상황등에 대한 설명과 파푸아, 보르네오, 폴
로레스 섬 등에 대한 역사소개를 했다.

*대학생들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출국 전에는 자원이 많고 아시아의 제2의 허브
로써 기회가 많은 국가라고 생각하고 많이 후진국
일거라고 생각했었다. 출국 후 현지에서 느낀 점
은 생각보다 많이 발전되어 있고 사업성이 높다
고 느꼈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인도네시아인의
사상이나 행동양식을 알게 되었으며 오랜 역사 및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또한 자리에 참석한 한인회 여성회 관계자는 "
우물안에서 나와 넓은 곳을 바라보고 도전하라"
"한국에서의 취업만을 바라보는 좁은 시각을
내려놓고 새로운 기회들을 모색하라"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한 달간의 짧은 시간에 모든 것
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이번 기
회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코
멘트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동아대학교와 헤리티지 코
리안섹션이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역사와 문화 및
박물관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
적인 우호관계를 통해 인문 역량 강화를 위한 다
양한 학술 활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 한인포스트>

시스템부터 각종 소모품 판매, 그리고 신속한 A/S까지!
컨셉에 해결할 수 있는 TOTAL SOLUTION!
PT.NANOSNG가 약속드립니다!

- **MUTOH** [공식대리점]
- **Mimaki** [공식대리점]
- **DGI** 인도네시아 공식총판

취급 품목

- 디지털프린터(실사기)
- 컷팅플로터(컷팅기)
- 코팅기
- 평판 프레스
- 롤 프레스
- 잉크(전사잉크, 솔벤트잉크, 안료잉크, 염료잉크)
- 소재(전사지, 합성지, 코팅지, 백릿필름 등)
- 각종 소모품

OUG-TYPE
롤전사기

MUTOH

WaveJet
실사기

PressJet APC-6240
평판 프레스 (전사기)

DGI
FABRIJET FT-1904X

Mimaki **TS300P-1800**

▶ WaveJet 시리즈 (실사기)

- 4색으로 6색 이상의 고화질 구현
- 기존 장비 대비 30% 출력 속도 향상

▶ ValueJet 시리즈 (실사기)

- 이색현상 없는 경이적인 고화질 출력
- 3면 히팅 시스템으로 인한 높은 조도율

▶ RJ 시리즈 (실사기)

- 2800dpi 고해상도 출력
- 쾌속 출력

▶ CE 6000 (컷팅기)

GRAPHTEC
CE6000-120

PT.NANOSNG
PT. Nano System & Graphic
나노에스엔지
Nano System & Graphic Co., Ltd.

Gudang Central Cakung Blok H2 No.19 Jl. Cakung Cilincing KM.3
Jakarta Utara, **INDONESIA** Phone : 021 - 2606 022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4동 1245-4 (우: 135-965)
대표전화 021578-3854 / 팩스 021578-3845 / 휴대전화 010-6280-7527

대표/양배근
E-mail : bgyang@nanosng.com
HP : 0813 8031 9224
www.nanosng.com

정통 중화요리 전문점
Korean Chinese Restaurant

회빈 會賓

Hoi Bin

Ga Ma Sot **Tel. 021-722-3134**

佳者 Gahyo

최상의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그 이름에 담아 모시겠습니다.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akarta Selatan, Indonesia
Tel. (021)5289-7044

Sports Mall
Jl. Raya Kelapa Nias Blok A 26-27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Tel. (021)4587-6626

구글의 미래는?

우리가 아는 구글의 세상 '구글 검색' '안드로이드' '유튜브' '구글맵' 등 현재 모바일·인터넷 세상을 지배하며 황금알을 낳고 있는 구글은 손대는 사업은 모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패하는 사업이 적지 않다.

최근 수년 새 구글은 유선인터넷, 로보틱스 등 한때 구글의 미래로 꼽았던 사업들을 잇달아 접고 캐시 카우(Cash Cow)인 검색 광고 매출도 둔화되고 있다. 구글의 미래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구글의 실패 사업 사례들

지난해 8월 중순 구글은 연간 130달러만 내면 기가급(1Gb/s) 인터넷·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대역 초고속인터넷 사업인 '구글 파이버' 프로젝트를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초고속인터넷이 사실상 속도가 느리고 독점화 되어 있어 비용이 높다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구글은 기존 인터넷 속도보다 30배 빠른 속도로 그리고 더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야심차게 구글 파이버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구글은 광케이블 매설에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서비스 제공 도시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일단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부터 광케이블 대신 초고속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글의 대표적 미래 사업으로 꼽히던 로보틱스도 사실상 접는 수순에 들어갔다. 2013년 의욕적으로 사들인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개발사 보

스턴다이나믹스와 소프트를 제작년 6월에 인수한지 3년 만에 시장에 내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으로 보아 구글이 로봇 산업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이외에도 세계적인 웨어러블 돌풍을 일으켰던 '구글글라스'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실상 생산을 중단했다. 여기에 스마트폰 사업을 하기 위해 인수·합병한 모토로라도 2014년 레노버에 매각했다. 구글의 하드웨어 사업으로 가정용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인 '네스트'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유튜브가 구글을 받쳐 주고 있지만 페이스북이 최근 동영상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유튜브가 더 이상 '광고 수입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직도 구글의 미래는 긍정적?

그러나 구글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래리 페이지는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이 '미친짓'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계속 도전하려 한다”고 여전히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지금도 구글은 64,000명의 직원들로부터 기발한 아이디어를 받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전문가들을 모으고 해당 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게 일상화 되어있다. 이처럼 하드웨어에서 고전하는 구글은 생명과학, 통합 OS, 인공지능(AI) 등에 집중하면서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이지만 이 같은 차세대 사업이 언제 수익을 낼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구글은 IoT 디바이스 '구글 홈', AI 기반 스마트 메신저 '알로'와 가상현실(VR)



이동호 명예기자 (중국 소주 인산국제무역유한공사 동사장)

플랫폼 '데이드림' 등을 발표했지만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그러나 구글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그것은 구글에서 '미친 짓'을 연구하는 조직인 '구글 X'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상상과 꿈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X는 '식량 문제 해결' '오지 인터넷 보급' '친환경발전' 등 일개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험난하고 리스크도 많지만 인류 미래를 위한 사업에 과감히 뛰어 들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존 풍력터빈발 전보다 90% 적은 소재로 50% 더 많은 발전량을 실현할 수 있는 터빈을 연차법 하늘에 띄워 전기를 생산하는 '마카니 프로젝트'가 거의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구글은 외친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뭔가 부수고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보냅니다. 우리는 신이 나서 매일 '오늘은 어떤 프로젝트를 폐기처분할까' 고민합니다." 구글과 구글이 아닌 기업의 차이는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한류, 역주행인가 숨고르기인가

지난해 연말 탄핵 정국으로 인한 쏠림 시위가 광화문을 달구고 있을 무렵, 한류와 관련하여 놀랍고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1997년 이래 한류의 견인차이자 기지(基地) 역할을 하고 있던 지상파방송의 콘텐츠 수출 추세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이다. 아니 정지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퇴보세를 보였다. 한류의 간판격인 K드라마에 적신호가 울렸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방송산업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내역을 보면 2015년 지상파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유료방송채널)의 수출총액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3억199만 달러를 기록했다. K드라마를 앞세운 방송분야 수출총액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9.9% 증가하면서 한류를 견인해 왔다. 그런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8.6% 증가세로 주춤더니 2015년에 들어 아예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 지상파의 경우 2년 전인 2013년의 1억914만 달러보다 낮은 1억643만 달러다. 말하자면 역주행이다.

그동안 방송계는 한류의 수출 권역을 다변화하려고 노력해 왔다. 중동에서는 터키, 이란 등의 <대장금> 열풍이 있었고, 중남미는 쿠바에서 <내조의 여왕>, 아르헨티나에서 <시크릿 가든>, 브라질에서 <썬로로> 등이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방송 한류 콘텐츠의 주 시장은 여전히 아시아권이다. 2015년 역시 일본(35.3%)과 중국(26%)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95.5%가 아시아 국가다. 문제는 그 액면이다. 이번 조사에 나타난 수치를 보면 일본 및 중국 수출액이 전년 대비 현저히 줄어들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13년을 정점으로 이후 한류 수출의 하강세가 두드러진다. 바로 한 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2012년 8월에 MB의 독도 방문과 연

이은 일왕 사과 요구 발언이 있었다.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돌출 행동과, 이를 빌미로 한 일본 내 협한 정서와 아베 정권의 우경화가 이어지면서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당면 현안은 당연히 사드 배치다. 앞으로 양국이 이 문제에서 해법을 못 찾았다면 중국 측의 '보이지 않는' 한한령(限韓令)이 주는 파장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돌이켜 보면 <사랑이 뭐길래>에서 시작해 <겨울연가>로 불티 불고 <대장금>에서 만개를 했던 K 드라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별에서 온 그대>로 소구력을 재발견하고, <태양의 후예>로 전면목을 되찾은 줄 알았던 한류가 이제 천장을 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전 세계에 한국의 민낯을 내보인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격의 실추, 주 칠레 한국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등 약재가 중첩되어 한류의 붕괴가 우려되는 판국이다. 잘못 하면 그야말로 한방에 흑 간다. 급기야 'K드라마에서 K를 떼자'는 제언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방송 콘텐츠는 인접 및 파생 효과가 큰 한류의 전위이자 본진이다. 잘 나갈 때는 바빠서(?) 제 모습을 제대로 못 볼 수 있다. 이제 한류는 조정 국면을 맞았다. 이 기회에 전열을 정비할 때다. 한때 천편일률적인 기승전패로 구도와 출생의 비밀 등 작위적인 우연성의 낱말 등으로 연구자는 물론 팬들에게까지 조롱을 받았던 K드라마의 서사구조와 스토리텔링에 대한 치열한



정길화(MBC PD, 언론학 박사)

고민을 해야 한다.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신화적 상상력이 요구된다. 덧붙여 최근 주목받는 포맷 비즈니스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플랫폼의 다변화도 직시해야 한다. 그동안 방송 콘텐츠는 방송사 간의 거래인 B2B를 거쳐 B2C로 유통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OTT로 플랫폼이 바뀌면서 O2O와 모바일로 수용자가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한류 콘텐츠의 효율적인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의 퀄리티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대책은 방송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요컨대 이 기회에 방송 한류는 환골탈태해야 한다. 얌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제 숨을 고를 때다.

<박상훈 칼럼> 중소기업인을 위한 인터넷 활용 마케팅 3

왜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해야 하는가? 3

facebook business

정확한 타게팅을 통해 신규 고객 찾기

연말연시는 광고를 통해 관련성 높은 타겟에게 도달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Facebook의 타게팅은 대부분의 온라인 광고 네트워크보다 2배 이상 정확하게 때문에 실제로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질 만한 타겟에 대한 광고 비용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높은 성과를 올린 비즈니스에서 성공적으로 광고를 타게팅할 수 있었던 4가지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광고 만들기

또는 광고 권리

1. 연결 관계를 활용한 타게팅 2. 관심사 기준 타게팅 3.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활용한 타게팅 4. 모바일 광고 게재

1. 연결 관계를 활용한 타게팅

고급 연결을 사용하여 입소문 효과를 누리세요

오늘은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타겟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고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제품은 그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식당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파는가,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 위치는 어디인가에 따라 소비자가 달라질 것입니다. 세노파티에 있는 고급 한식당의 고객은 대부분이 한국 사람일 것이고, 현지인들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은 층이 타겟이 될 것입니다. 적절한 타겟을 골라서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지금의 마케팅입니다.

메스 미디어에서도 타겟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소비성향이 좋은 20~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제작되고, 그런 프로그램은 전체 시청률이 낮아도 해당 타겟의 시청률이 높을 경우 광고를 쉽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광고주는 더 효율적으로 내가 집행한 금액이 나의 매출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회사나 서비스에 알맞은 정확한 타겟을 설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라인 광고는 이런 타겟 설정에 최적화가 되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광고하면 먼저 떠올리시는 검색 광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자카르타 한식당'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카르타에 있거나 자카르타에 가게 될 사람으로 검색 시점 또는 그 이후에 한식당을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검색어는 트랜드일 수도 있고, 개인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검색어를 잘 활용하면 유용하게 타겟

팅을 진행할 수 있기에, 세계의 많은 회사들이 온라인 검색어 타겟팅 광고에 오랜 시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검색어를 넘어선 타겟팅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구글, 페이스북은 대부분의 수입이 광고 비용입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 드렸듯이 위와 같은 회사들은 우리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의 이용패턴을 분석해 냅니다.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한다는 것은 광고주에게 더 정확한 광고 타겟팅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구글이 일반 용량의 사진을 무제한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페이스북이 사진 정보가 있는 포스팅을 왜 더 많은 노출을 지원해 주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글의 구글맵이 왜 공짜이며, 페이스북에 포스팅할 때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일까요? 위의 서비스들이 우리에게 이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이 모든 정보를 분석하면 우리의 생활 패턴이 되고, 관심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광고주에게 더 정확하게 분류된 정보를 제공해야만, 광고의 효과가 올라가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매체에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 마케팅에 대해서는 향후 실전 온라인 마케팅에서 자세히 다루게 되겠지만, 오늘은 타겟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페이스북 광고 타겟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광고에서 타겟팅의 가장 기본적인 색 시점 또는 그 이후에 한식당을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검색어는 트랜드일 수도 있고, 개인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검색어를 잘 활용하면 유용하게 타겟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실제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타겟팅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노파티의 식당이 찜뽕부르에 있는 고객에게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질 것입니다. 실제 페이스북은 이 외에도 관심사나 행동에까지 그 분류를 나눠 타겟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류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야구를 좋아하는지 축구를 좋아하는지, 멕시코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하는지 등등 수 많은 분류에 따라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타겟팅을 정밀하게 할 수록 광고의 단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실제 나의 웹사이트나 기존 고객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페이스북에만 광고를 노출해 주는 기능도 있으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분석해서 그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소비자에게 광고를 노출해 주는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더욱 더 정교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마케팅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인 타겟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타겟팅은 광고의 효과를 상승시킵니다. 타겟팅이라는 것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비즈니스를 정확히 분석하고 자신의 고객층을 더 효과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의 고민보다는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실전에서 결과를 분석해 가면서 쌓이는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적은 금액이라도 온라인 마케팅을 직접 한번 운영해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마케팅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PT. FREIGHT CARGO LOGISTICS

해상운송	-Neutral consolidator -Transport Containerized Cargo & Heavy Project Cargo -Custom broker
항공운송	-Worldwide Transportation Service -Project Cargo & Special Cargo (Exhibition, Dangerous Cargo) -Air/ Sea & Sea/ Air Service
내륙운송	-Containerized & Heavy Project Cargo Transportation
창고보관 업무	-Wide Warehouse Network
통관 업무	-Customs Clearance Service -Processing of Press Duty List
컨설팅	-Logistics Consulting Service

KOMP. GADING BUKIT INDAH BLOK I NO.01
TEL: 62-21) 4584 3133 FAX: 62-21) 4585 2491/2/3
EMAIL : fcl@fcl.co.id HOMEPAGE : http://www.fcl.co.id/

인도네시아에서는 왜 “혹스” 기사가 많이 유포되는가?



반 혹스단체(Masyarakat Anti Hoax) Septiaji Eko Nugroho단체장은 인도네시아인들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혹스기사가 많이 유포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인들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각종 소식을 접하는 횟수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혹스’ 기사가 널리 유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인도네시아 사회는 읽기를 좋아하는 사회가 아니고 수다떨기를 좋아하는 사회”라며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정보를 접한 후 그것의 사실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주위 사람에게 공유한다”고 말했다고 콤포스신문이 2월 7일 보도했다.

유네스코(UNESCO)는 2012년 인도네시아인 1,000명 가운데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꼴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즉 250,000,000명의 인구 가운데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250,000명에 불과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2014년 유네스코는 인도네시아 아동들은 1년에 27페이지의 글을 읽는다고 밝혔다.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와 OECD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인도네시아 국민의 독서는 396포인트에서 397포인트로 소폭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5년 12개 주 28개 군에 있는 도서관에서 시행된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민의 독서는 25.1 포인트로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 2014

년까지 Central Connecticut State University의 World’s Most Literate Nations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61개 조사 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민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60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인도네시아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2012년 63,000,000명, 2013년 71,900,000명, 2014년 88,100,000명, 2016년 132,700,000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휴대폰을 이용해 인도네시아인들이 각종 소식을 구독하는 횟수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구독량은 2010년 211,200,279건, 2011년 249,805,619건, 2012년 281,963,665건, 2013년 313,226,914건, 2014년 325,582,891건, 2015년 338,948,340건으로 나타났다.

1154명 단체손님 3일부터 방한... “웰컴 인도네시아!”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판매회사인 MCI(Millionaire Club Indonesia) 임직원 1154명으로 구성된 인센티브 단체 손님들이 3일부터 차례로 방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온 인센티브 방한단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3~8일 8개 그룹으로 나뉘어 입국할 예정이다. 한국 체재기간 중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에서 스키 체험, 평창 바람마을에서 치즈 만들기 체험, 경기도 이천에서 딸기 따기 체험, 공연관람 등 한국에서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체험을 할 계획이다. 관광공사 자카르타 지사는 지난해 수차례의 세일즈 콜과 MICE 로드쇼 등을 통해 인센티브 단체 유치에 노력해 왔다. 지난해 5월 4일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MICE Night Show”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사 직원들이 지난해 서울시내 한 북관에서 벌인 깜짝 플래시몹>

에서 MCI 및 동 단체의 송출 여행사를 대상으로, 방한 인센티브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소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작년 말 이들의 한국행을 약속받았다. 인도네시아 관광객은 작년 30만명이 한국을 찾았다. 앞으로 100만명, 200만명으로 커지는 등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1500

년 우정이 되살아난다면, 인니는 우리의 중요한 산업, 관광, 경제, 문화교류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한류 사랑은 동남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인 관광객을 보면 모여들어 좋아하는 한류스타 이름을 대기도 한다. 순수하고 포용력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인도네시아패션위크 개막 <모델들이 1일 개막식현장에서 디자이너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5일간 진행되는 2017 인도네시아 패션주간이 수도 자카르타에서 개막했다.>



LPGA 텍사스샷아웃 신지은프로 우승

우승 샤프트 !!

JLPGA 신지애 프로

LPGA 신지은 프로

대한민국 대표 샤프트

AUTOPOWER

30m 비거리 증가
최고의 비거리
최고의 방향성
새로운 소재 PSM 공법 16324

SHAFT AUTOPOWER TX5885 5 XX	SHAFT AUTOPOWER TX5885 5 X	SHAFT AUTOPOWER TX5885 5 XX	SHAFT AUTOPOWER PSM - T 5 SR	SHAFT AUTOPOWER TX5885 5 XX	SHAFT AUTOPOWER PREMIUM 6 R
LPGA Na Yeon, Choi	JLPGA Ji Yai, Shin	LPGA Eun Hee, Ji	LPGA Jenny Shin	KLPGA Han Sol, Ji	KLPGA Eun Hye, Ju

JLPGA 신지애, LPGA의 장타 에밀리 투벌트, KPGA 김대현, 이경훈, LPGA 지은희, 제니신, 캘리슨, 파울라, 그레이스 박, KLPGA 주은혜, 지한솔, 조아라, 김우정, 이수연, 이도연, 국가대표 유혜란, 주니어 문건일

귀중한 한 타를 줄이기 위해
투어 프로들이 선택한 오토파워샤프트.
이젠 ! 귀하가 선택 할 차례 입니다



인도네시아총판, PT.GOLF GADING MAS
The Club Gading Mas, Jl. Boulevard Barat Raya Lt.2 No.1
Kelapa Gading, Jakarta Utara

문의:
0812 3646 5252